

1 **노심초사(勞心焦思)**

勞 일할 로, 心 마음 심, 焦 태울 초, 思 생각 사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움

출제 빈도수 1위 총 14회	2014년 고3 6월 모평
	2012년 고3 3월 학평
	2012년 고3 10월 학평
	2011년 고2 3월 학평
	2010년 고1 9월 학평
	2010년 고1 11월 학평
	2009년 고2 9월 학평
	2008년 고3 6월 모평
	2008년 고3 7월 학평
	2008년 고2 11월 학평
	2008년 고1 9월 학평
	2008년 고1 11월 학평
	2006년 고3 3월 학평
	2005년 고3 9월 모평

기출 2006 고3 3월 학평

밤이 이미 깊으매 손님들이 다 취하여 누웠거늘, 첩이 벽 사이로 엿보니 진사 또한 그 뜻을 알고 귀통이를 향하여 앉거늘, 첩이 편지를 던지니 진사가 집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 떼어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생각하는 정이 전보다 더하여 능히 목숨을 보존치 못할 듯한지라. ㉠이제 답장을 써 부치고자 하나 청조가 없는지라 홀로 가슴만 태울 뿐이더니
- 작자 미상, <운영전>

Q. ㉠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기출 2008 고1 11월 학평

㉠대부인이 너를 보내고 주야로 염려하시니 어서 가거라.
- 김만중, <구운몽>

Q. ㉠에 나타난 대부인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은?

기출 2008 고3 7월 학평

안평국 왕비는 성의를 보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병세가 점점 더해갔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A] “십여 세 어린 아이가 이상한 도사의 말을 듣고 어미를 위하여 만리창과에 어디로 정처없이 갔는고? 망망창해의 파도는 매우 세차게 일고 구름 걸린 산봉우리는 첩첩한데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꼬? 한번 떠난 후로 생사를 알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 하겠는가? 이제 다시 못보고 죽으면 어찌 눈을 감을소냐?”
- 작자 미상, <적성의전>

Q. [A]를 한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 **동병상련(同病相憐)**

同 같을 동, 病 병 병, 相 서로 상 憐 불쌍히 여길 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이르는 말

출제 빈도수 2위 총 13회	2014 고3 4월 학평 B형
	2014 고2 3월 학평 A형
	2014 고1 6월 학평
	2012 고3 7월 학평
	2012 고1 9월 학평
	2012 고3 10월 학평
	2012 고3 9월 모평
	2011 고3 9월 모평
	2011 고2 11월 학평
	2011 고2 9월 모평
	2010 고2 6월 학평
	2008 고3 9월 모평
	2006 고1 6월 학평

3

설상가상(雪上加霜)

雪 눈 설, 上 위 상, 加 더할 가, 霜 서리 상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남.

출제 빈도수 3위 총 11회	2014 고1 9월 학평
	2013 고3 4월 학평 A형
	2012 고3 4월 학평
	2011 고2 6월 학평
	2011 고3 4월 학평
	2010 고1 3월 학평
	2010 고1 9월 학평
	2009 고2 9월 학평
	2008 고3 10월 학평
	2008 고2 3월 학평
	2007 고1 3월 학평

기출

2014 고1 9월 학평

“에고, 형수씨, 밥 한 술만 주오. 이 동생 좀 살려 주오.”
하며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니, 이년 또한 몹쓸 년이라 와
락 돌아서며 하는 말이,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를 들어오누?”

하며 밥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바른 뺨을 지근 때리니,
흥부가 그 뺨 한 번을 맞은 즉슨 두 눈에 불이 화끈하며
정신이 어찔하다가 뺨을 슬며시 만져 보니 밥이 불파귀에
붙었는지라 일변 입으로 흠쳐 넣으며 하는 말이,
“이주머님은 뺨을 쳐도 먹여 가며 치시니 감사한 말을 어
찌 다 하오리까. 수고스럽지마는 이 뺨마저 쳐 주시오, 밥
좀 많이 붙은 주걱으로 그 밥 갖다가 아이들 구경이나
시키겠소.”

㉠이 몹쓸 년이 밥주걱은 놓고 부지깁이로 흥부를 흠씬
때려 놓으니, 흥부 아프단 말도 못하고 하릴없이 통곡하
며 돌아오니 천지가 망망하더라.

- 작자 미상, <흥부전>

Q. ㉠의 흥부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출

2012 고3 4월 학평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 작자 미상, <반씨전>

Q. ㉠의 상황에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출

2010 고1 3월 학평

별안간 박 속에서 모진 바람이 쏘아 나오며 벼락 같은 소
리가 나더니 똥줄기가 무자위 줄기처럼 내쏘는지라. 놀부
부부가 똥벼락을 맞고 나동그라지며 똥줄기는 친군만마가
달려나오는 듯 태산을 밀치고 바다를 메울 듯 삽시간에
놀부 집 안팎채에 가득하니 (중략) 이처럼 땅을 두드리며
통곡할 제 앞뒀집에 사는 양반 제 잡까지 똥이 밀려가서
그득한지라. ㉠그 양반들이 공론하고 고두쇠를 벼락같이
부르더니 놀부 놈을 즉각 잡아오라 분부한다.

- 작자 미상, <흥부전>

Q. ㉠과 같은 상황을 한자 성어로 활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4

오매불망(寤寐不忘)

寤 깰 오, 寐 잠잘 매, 不 아니 불, 忘 잊을 망

자나깨나 잊지 못함

출제 빈도수 4위 총 10회	2014 고2 6월 학평 A형
	2014 고2 9월 학평 B형
	2013 고3 9월 모평 A형
	2013 고1 3월 학평
	2012 고2 9월 학평 B형
	2012 고3 9월 모평
	2012 고3 10월 학평
	2012 고2 3월 학평
	2010 고2 6월 학평
	2008 고1 9월 학평

기출 2014 고3 4월 학평

㉠날이 저물면 문을 닫고 온갖 상념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었으니, 제 몸이 이렇듯 수척하게 된 것도 모두 낭군 때문입니다…….

- 권필, <주생전>

Q.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출 2012 고3 9월 모평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Q.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사필귀정(事必歸正)

事 일 사, 必 반드시 필, 歸 돌아갈 귀, 正 바를 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임

출제 빈도수 5위 총 9회	2013 대수능(2012년 시행)
	2013 고2 6월 학평 A형
	2013 고2 11월 학평 A형
	2012 고3 4월 학평
	2010 고3 3월 학평
	2009 고3 4월 학평
	2007 고3 4월 학평
	2006 고1 6월 학평
	2005 고1 6월 학평

기출 2005 고1 6월 학평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한 지 오래된 어느 날, 그 집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며 힐끔힐끔 돌아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살피고 다시 나가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에 못마땅한 눈치였다. 불일을 다 보고 돌아온 주인은 방 안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며 광문을 노려보고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얼 굴뚝을 고치고는 말이 없었다. (중략)

㉠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후회하며 광문에게 사과를 하였다. “나는 옹졸한 사람이고 공연히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제부터는 그대를 대할 면목조차 없습니다.”

- 박지원, <광문자전>

Q. ㉠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삶의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기출 2010 고1 3월 학평

별안간 박 속에서 모진 바람이 쏘아 나오며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니 똥줄기가 무자위 즐기처럼 내쏘는지라. 놀부 부부가 똥벼락을 맞고 나동그라지며 똥줄기는 천군만마가 달려나오는 듯 태산을 밀치고 바다를 메울 듯 삼시간에 놀부 집 안팎채에 가득하니 (중략) 이처럼 땅을 두드리며 통곡할 제 앞뒷집에 사는 양반 제 집까지 똥이 밀려가서 그득한지라. ㉠그 양반들이 공론하고 고두쇠를 벼락같이 부르더니 놀부 놈을 즉각 잡아오라 분부한다.

- 작자 미상, <홍부전>

Q. ㉠과 같은 상황을 한자 성어로 활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6 이심전심(以心傳心)

以 써 이, 心 마음 심, 傳 전할 전, 心 마음 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

출제 빈도수 5위 총 9회	2014 고3 3월 학평 A형
	2014 고2 9월 학평 A형
	2012 고2 11월 학평 A형
	2012 고3 9월 모평
	2011 고3 6월 모평
	2011 고3 10월 학평
	2011 고1 9월 학평
	2008 고3 7월 학평
	2006 고3 6월 모평

14 수수방관(袖手傍觀)

袖 소매 수 손 수 傍 곁 방 觀 볼 관
나서야 할 일에 간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둠.

출제 빈도수 7위	2014 고3 7월 학평 B형
	2012 고2 9월 학평 A형
	2010 고2 6월 학평
	2010 고1 3월 학평
총 7회	2010 고1 9월 학평
	2007 고3 9월 모평
	2006 고2 6월 학평

15 각골통한(刻骨痛恨)

刻 새길 각, 骨 뼈 골, 痛 아플 통, 恨 한할 한
뼈에 새기듯이 마음에 깊이 사무쳐 맺힌 원한.

출제 빈도수 7위	2013 대수능
	2014 고3 4월 학평 B형
	2014 고3 6월 모평 B형
	2014 고2 9월 학평 A형
총 7회	2012 고3 10월 학평
	2011 고3 6월 모평
	2007 고3 9월 모평

기출 2014 고3 4월 학평 A형

유소저 백옥 같은 몸에 누명을 얻으니 원정을 누구에게 말하리오.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빼어 죽으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이렇듯 죽으면 내 일신이 옥 같음을 누가 알리오'하고 이에 적삼을 벗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쓰니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되더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Q. ㉠에 드러난 '유소저'의 심리를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출 2014 고3 6월 모평 B형

그의 격격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랏배 통학생임더.”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Q. 문맥상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기출 2014 고2 9월 학평 A형

숙향은 전생에 지은 죄를 이승에 와서도 갚기 어렵도다. 금석(金石)같은 인연이 변하여 바람이 되었구나. 향기로운 꽃이 속절없이 낙양 옥중에서 흙이 되리로다. ㉠슬프다! 낭군을 다시 못 보고 죽게 되니, 저승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 작자 미상, <숙향전>

Q. ㉠에 나타난 '숙향'의 심정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출 2007 고3 9월 모평

신이 본대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니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Q. ㉠를 바꾸어 쓴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출 2011 고3 6월 모평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죽었으니 지금 까지 십오 년을 얼굴도 모르오니 천지간 끝없이 깊은 한이 깎 날이 없었습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Q. ㉠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